

자연자본공시 대응 전략,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 7월 7일 코엑스에서 제4차 자연자본공시 토론회(포럼) 개최
- 국내외 기업·학계·전문가 등 150여 명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와 7월 7일 오후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차 자연자본공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자연자본공시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후공시 이후 자연자본공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업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 안내서, 시범보고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연자본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학계·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자연자본공시 표준을 제정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 사무국, 인도산업연맹(CII), 영국의 환경은행(Environment Bank),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타타스틸(TATA Steel) 등 해외 자연자본 공시 전문가들이 국제 동향과 도입 사례,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조업 기반의 자연자본 관리 전략과 함께 생물 다양성 분야에 대해 공시한 경험을 공유하며, 끝으로 에스케이증권(SK 증권)이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연자본 투자 전략과 분석 사례를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이미 자연 자본공시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4차 자연자본공시 포럼 계획.
 2.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염승건 (044-201-7231)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재신 (032-590-7171)
		담당자	연구관	이재호 (032-590-7210)



붙임 1

'제4차 자연자본공시 포럼' 개최 계획

□ 배경 및 목적

-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대응을 위해 '24년부터 민관 소통, 포럼 개최 및 지원책 추진 중
- '제4차 자연자본 공시 포럼'을 개최하여 자연자본공시 관련 국제 동향 전파 및 국내·외 공시 모범사례 공유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6.7.7(화), 13:40~17:20, 서울 코엑스
- (주 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국립생물자원관 공동
- (참석자) 기후부 제1차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TNFD 사무차장, MSCI, 인도산업연맹, 해외·국내기업 담당자 등 150여명
- (주요내용) 자연자본공시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공유, 자연 관련 해외 규제 및 생물다양성 크레딧 제도 현황, 패널토론 등

□ 세부일정(안)

시 간(분)		주요 내용	비 고
1부	13:40~13:45	5' 식순 소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자
	13:45~13:50	5' 개회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13:50~13:55	5' 환영사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13:55~14:00	5' 축사	TNFD 캔디스 도트 사무차장
	14:00~14:05	5' 사진 촬영	참석 귀빈
	14:05~14:15	10' 장내정리 및 휴식	
2부	14:15~14:35	20' 자연자본공시 평가 사례 및 공시전략	타제슈와르 고얄(TNFD)
	14:35~14:55	20' 인도 자연공시 정책 및 산업계 동향	스와티 테와리(인도산업연맹)
	14:55~15:15	20' 자연 관련 기업 평가 지표 및 사례	세드릭 라그랑주(MSCI)
	15:15~15:35	20' 영국 자연 상쇄 제도 및 사례	로버트 레글스워스 (Environment Bank)
	15:35~15:55	20' 인도 기업의 TNFD 보고사례	제이슨 토마스(TATA Steel)
	15:55~16:15	20' 한국 기업의 TNFD 보고사례	김동환(삼성전자)
	16:15~16:35	20' 한국 기업의 TNFD 보고사례	김미현(SK증권)
	16:35~16:40	5' 장내정리 및 휴식	-
3부	16:40~17:30	50' 질의 응답 및 토론	발표자 및 좌장

□ (명칭)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NFD)

※ 자연자본: 인간에게 혜택을 공급하는 재생가능 및 재생 불가능한 자원(예, 식물, 동물, 공기, 물, 토양, 광물 등)의 저장물(stock)

□ (개념) 자연 손실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환경협의체로서, 국제 이니셔티브('21년 6월 공식 출범)

□ (참여) 정부, 국제기구, 금융기관, 기업 등 약 1,919개 기관('26.6.24. 기준)

구분	참여기관
정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국제기구 (공공기관)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세계자연기금(WWF), Worldbank, OECD, IUCN, 유럽중앙은행 등
기업	JP모건, 무디스, 블랙록(Blackrock), 홍콩상하이은행(HSBC), 네슬레, Shell, KPMG 등

□ (배경) 기업의 사업·재무적 결정 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표준화 필요성 논의

□ (목표) 기업이 보유한 자연자본 관련 위험성을 공개하고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앞서 발족 된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의 리스크 관리 및 공시기준 준용

□ (동향) 자연자본 관련 재무위험·기회에 대한 프레임워크* 마련·공개, 글로벌 기준 제정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협업** 中

* 초안 발표('22.3) → 의견수렴('22.6, '22.11, '23.2) → 최종 권고안 발표('23.9)

** 자연 관련 공시기준 연구 착수('24.4), ISSB-TNFD 협력 MOU 체결('25.4), 초안발표('26.10예정)